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태정¹ · 문미경²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¹,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²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ang, Tae Jeong¹ · Moon, Mikyung²

¹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with major,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studen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1 to August 31, 2014. Participants were 400 students who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cover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with major and self-leadership. The SPSS/WIN/PC 21.0 program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al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average scores f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with major, and self-leadership were 2.51, 3.80, 3.89, and 3.51 respectively.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with major, and self-leadership. Age, academic year,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general satisfaction in satisfaction with major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career educational programs considering according to the academic year of nursing students and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with major, Self-leadership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진로준비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나 혹은 진로결정 이후 결정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1]. 학교에서 일의 세계로 이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대학생 시기에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의 탐색을 통해 진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실질적인 준비 행동을 실행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직업세계에 입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2]. 체계적인 진로준비의 부족으로 잘못된 진로 선택을 하는 경우 잦은 이직, 전공불일치 및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 등으로 인해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초래하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2].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학을 선택한 동시에 간호사라는 진

주요어: 진로준비행동,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Corresponding author: Moon, Mikyung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680 Gukchaebosang-ro, Jung-gu, Daegu 41944, Korea.
Tel: +82-53-200-4793, Fax: +82-53-421-2758, E-mail: mkmoon@knu.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장태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eimyung University.

Received: May 29, 2016 | Revised: Sep 5, 2016 | Accepted: Sep 20,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로가 결정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함으로써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왔다[3]. 즉,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보다는 성적이나 직업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수학능력시험 이후나 고등학교 3학년 때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더욱이 입학 후에도 다양한 진로를 찾기보다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국내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 취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진로준비보다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채용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5]. 이렇게 입학 당시 뿐 아니라 대학생활 동안 진로에 대한 명확한 준비 없이 병원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막연히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간호사라는 직업에 적응과 몰입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6]. 또한 몇몇 연구에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준비행동 부족이 다른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들에 비해 낮은 업무만족도와 높은 조기이직률의 원인의 하나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5,7].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의 해결방안으로 면허를 가진 유휴 간호사가 6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또다시 9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배출되는 간호학과 졸업자 수는 2만 명이 넘어서게 되었다[8]. 이와 같이 해마다 많은 수의 신규 졸업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간호대학생들이 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대학병원의 간호사 수요는 제한적이어서, 간호대학생들은 이제껏 예상치 못한 취업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었다[6]. 결국 이러한 혼란스런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생들과 같이 간호대학생들에게도 충분한 진로준비행동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되었고, 이에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취업과 취업 후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준비행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9].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인지적, 태도적 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하는 행동과 진로결정 사항을 실천하는 행위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증가하는 일, 실제 면접에 대비한 모의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 차원이다[1]. 이와 같은 진로준비행동은 갑작스런 준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신의 탐색과 경험을 토대로 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므로[10] 일시적인 환경이 아닌 자신의 내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작용시켜야 한다[2]. 결국,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의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활동을 위해 가장 우선 시 되는 과정은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안정된 진로준비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 대학생의 경우 진로준비행동의 중요성을 앞서 인식하고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1,2,11,12].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학연구에서도 몇몇의 진로준비행동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태도성숙 등 진로와 관련된 인지, 태도 측면을 다룬 연구나[3,5],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수의 관계를 파악하는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으로[7,9] 간호학과 학생들이 경험하는 전공 관련 개념을 반영한 여러 변수들의 종합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에서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를 말한다[13].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된 간호대학생들은 간호를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간호 전문직의 미래에 희망을 갖고 간호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긍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자신이 생각하는 간호에 대한 직업적 소견과 가치에 대한 관점,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인식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진로목표를 향해 준비하는 행동들은 달라질 수 있다[7]. 결국,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는 것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어 신규간호사가 임상에서 현실충격을 극복하여 전문직 사회화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7].

또한 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간호대학생의 내적 요인으로 전공만족도를 들 수 있다. 전공만족이란 학과만족과 같은 개념으로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15]로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진로에 대한 자기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진로에 대한 태도가 성숙해진다[16]. 간호학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임상실습 시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진로결정과 준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그러나 본인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학과 취업률이나 성적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도는 낮아지고 향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따라서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진로를 계획하고 스스로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자신

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 감으로써 올바른 진로결정과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2]. 이에, 전통적인 지시적 리더십보다는 본인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주도적으로 과업을 달성하는 셀프리더십은[18] 대학생활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실현가능한 진로목표를 설정하여 스스로 성취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진로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19].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은 개인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진로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고 목표성취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 관련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가장 높은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

앞선 연구들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간호대학생들의 전문직관, 전공만족도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과 고유의 내재요인들로서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일 수 있으며, 셀프리더십은 일반대학생 뿐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요인들은 간호대학생 시기 동안 학습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 관계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단순히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등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어 세 변수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변인 중에서도 간호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진로준비행동,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을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비교한다.
-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의 수준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와 K도에 소재한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4학년 간호대학생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되,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수는 설문지 문항의 5배 수인 총 40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0.15 유의수준=.05, 검정력=.95, 예측변인 13개로 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표본 수인 189명을 충족하였다. D시와 K도에 위치한 25개의 간호대학 중 표본크기와 학생 수를 고려하여 편의 표출된 6개의 학교 중 자료수집을 허락한 4개 학교에서 100명씩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10문항, 진로준비행동 16문항, 간호전문직관 18문항, 전공만족도 18문항, 셀프리더십 18문항을 포함한 총 80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이다.

1) 진로준비행동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차원인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과 김계현[1]이 개발한 도구로 16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도구는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인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봉환과 김계현[1]의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윤은자 등[13]이 개발한 29문항을 한상숙 등[21]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축소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상숙 등[2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5였다.

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미국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 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를 수정·보완하여 김계현과 하혜숙[15]이 작성한 학과만족 도구 34문항 중 이동재[22]가 전공만족 관련된 18문항을 추출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공분야에 대한 일반적 관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일반만족' 6문항과,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나타내는 '인식만족' 6문항, 교과 내용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3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동재[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4였다.

4)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이란 개인이 스스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행위적, 인지적 전략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다[23]. 본 연구에서는 Manz[23]가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김한성[24]이 수정·보완한 총 18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 등 6개의 하위요인으로 각각 3문항씩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한성[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2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임상 연구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nterna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40525-201406-HR-46-03)을 받은 후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각 대학으

로부터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 연구자가 해당 간호대학의 학과장에게 전화나 전자메일로 연구목적과 진행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이후 해당 학교 학과장의 도움으로 하계방학 중 특강이나 방학 중 실습, 개강 전 오리엔테이션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한 날 연구자가 각각 교내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대상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모든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함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설문 응답 허락을 받은 후 수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준비된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 사람당 약 10~15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 응답 후 감사의 표시로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진로준비행동,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독립 t-test와 ANOVA를 이용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과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간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평균 21.9세이고, 여성이 91.8%로 남성보다 많았다. 학년은 1학년 24.2%, 2학년 25.0%, 3학년 25.8%, 4학년 25.0%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종교가 없으며(56.3%),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56.3%). 줄

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곳은 대학병원이 가장 많고(78.5%),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취업에 유리해서(42.5%), 가치 있는 직업이라서(19.0%), 적성에 맞아서(18.3%), 부모님/주위의 권유(10.9%) 등이었다. 졸업반인 4학년 학생 100명 중 55명(55%)는 취업이 결정된 상태였으며, 전체 1~4학년 학생 중 56.3%는 임상에서 간호사로 계속 하길 희망하고 미 희망 시 희망 근무 기간은 평균 4.25년이였다.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나이, 학년, 취업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

의 경우 25세 이상인 경우가 24세 이하인 경우보다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고($t=7.19, p=.001$), 학년의 경우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았으며($F=14.33, p<.001$), 취업이 된 학생이 미취업학생보다 높았다($t=2.81, p=.005$). 그러나 성별, 종교유무, 동아리 활동, 희망취업장소, 지원동기, 임상근무 지속여부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셸프리더십

연구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2.51 ± 0.43 점이고,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80 ± 0.45 점, 하위요인은 간호의 독자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00)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SD	t or F (p)	Scheffé
Age (year)	≤ 24	364 (91.0)	2.49±0.42	7.19 (.001)	
	≥ 25	36 (9.0)	2.75±0.47		
		400 (100.0)	21.9±2.24		
Gender	Male	33 (8.2)	2.80±0.52	-0.11 (.916)	
	Female	367 (91.8)	2.81±0.45		
Academic year	1	97 (24.2)	2.36±0.38	14.33 ($<.001$)	a, b < c < d
	2	100 (25.0)	2.44±0.45		
	3	103 (25.8)	2.55±0.39		
	4	100 (25.0)	2.72±0.43		
Religion	Yes	175 (43.7)	2.56±0.40	1.91 (.057)	
	No	225 (56.3)	2.48±0.44		
Club activity	Yes	175 (43.7)	2.83±0.45	0.68 (.498)	
	No	225 (56.3)	2.80±0.46		
Preferred workplace	University hospital	314 (78.5)	2.53±0.43	1.17 (.323)	
	General hospital	32 (8.0)	2.42±0.31		
	Public official	23 (5.8)	2.44±0.46		
	Occupational health nurse	5 (1.3)	2.80±0.86		
	School nurse	11 (2.7)	2.46±0.26		
	Foreign nurse	11 (2.7)	2.60±0.53		
	Other	4 (1.0)	2.28±0.57		
Reason for application to nursing school	Beneficial to find a job	171 (42.5)	2.46±0.49	1.67 (.143)	
	Valuable work	77 (19.0)	2.61±0.40		
	Fit in aptitude	72 (18.3)	2.58±0.33		
	Steady job	19 (4.8)	2.47±0.30		
	Matched with the grades	18 (4.5)	2.51±0.40		
	On the advice of parents or others	43 (10.9)	2.49±0.39		
Employment status	Decided	55 (55.0)	2.66±0.40	2.81 (.005)	
	Not yet	45 (45.0)	2.74±0.36		
Continue to work in hospital	Yes	225 (56.3)	2.52±0.42	0.37 (.710)	
	No	175 (43.7)	2.50±0.44		
	If no, expectation of employment period (year)		4.25±0.43		

성 4.09±0.92점, 간호계의 역할 4.03±0.61점, 간호의 전문성 4.01±0.58점, 전문직 자아개념 3.94±0.53점, 사회적 인식 3.27±0.69점 순이었다.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으로 3.89±0.52점, 하위요인은 인식만족 4.30±0.74점, 일반만족 3.84±0.63점, 교과만족 3.55±0.65점, 관계만족 3.51±0.77점 순이었다.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3.51±0.45점, 하위요인은 자기보상 3.78±0.55점, 리허설 3.53±0.60점, 자기기대 3.52±0.62점, 목표설정 3.50±0.62점, 자기비판 3.46±1.09점, 건설적 사고 3.32±0.58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ean Scores f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with Major,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N=400)

Variables	M±SD	Measuring scor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51±0.43	1.00~4.00
Nursing professionalism	3.80±0.45	1.44~5.00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3.94±0.53	
Social awareness	3.27±0.69	
Professionalism of nursing	4.01±0.58	
Roles of nursing service	4.03±0.61	
Originality of nursing	4.09±0.92	
Satisfaction with Major	3.89±0.52	1.56~5.00
General satisfaction	3.84±0.63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4.30±0.74	
Curriculum satisfaction	3.55±0.65	
Relationship satisfaction	3.51±0.77	
Self-leadership	3.51±0.45	1.00~5.00
Self-expectation	3.52±0.62	
Rehearsal	3.53±0.60	
Goal-setting	3.50±0.62	
Self-compensation	3.78±0.55	
Self-criticism	3.46±1.09	
Constructive thinking	3.32±0.58	

4.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은 간호전문직관($r=.18, p<.001$), 전공만족도($r=.26, p<.001$), 셀프리더십($r=.44,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및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 일반만족($r=.33, p<.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with Major,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N=400)

Variable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 (p)	
Nursing professionalism	.18 (<.001)	
Satisfaction with major	.26 (<.001)	
General satisfaction	.33 (<.001)	
Self-leadership	.44 (<.001)	

5.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는 대상자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나이, 학년, 종교유무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 하위요인 중 일반만족, 셀프리더십을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학년과 종교유무는 더미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미변수 삽입 시, 학년은 '1학년', 종교는 '무'를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기준 0.1 이상) .764,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기준 10 이하) 1.309, 상태지수(Condition Index; CI, 기준 30 미만) 2.507~20.00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된 진로준비행동의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2.79, p<.001$).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학년, 간호전문직관, 일반만족, 셀프리더십이었으며, 셀프리더십($\beta=.34, t=6.98, p<.001$), 나이($\beta=.18, t=3.59, p<.001$), 학년($\beta=.13, t=2.50, p=.013$), 일반만족($\beta=.10, t=2.08, p=.039$), 간호전문직관($\beta=.10, t=2.08, p=.039$)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행동에서의 총 설명력은 30%였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N=400)

Variables	β	t	p
(Constant)			
Age	.18	3.59	.001
Academic year*	.13	2.50	.013
Nursing professionalism	.10	2.08	.039
General satisfaction	.13	2.63	.009
Self-leadership	.34	6.98	<.001
	$R^2=.30, F=22.79, p<.001$		

*Reference group=1st year.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 및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을 확인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간호대학생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진로준비행동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2.51점이고 총점의 평균은 40.16점이었다. 이는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총점 평균 55.51점 [11]이나 일반대학 여대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평균 2.57 [12]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이 병원에 취업을 하는 관계로 패턴화 되어 있고, 학생이 진로를 선택하기보다는 병원이나 기관의 설명회나 해당기관의 간호사 채용정보에 의존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인 듯하다 [3].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연구와 비교해 보면 간호학과 최고 학년인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한 고영지와 김인경 [7] 연구의 총점평균 42.7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1]. 더불어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가 고학년이 되어야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나이는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선 연구결과 [5,7]와도 일치한다. 취업유무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미취업 상태인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는 없었지만, 미취업 학생이 취업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80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 중 3년제 간호과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성지아 등 [9]의 연구에서 나타난 3.76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3년제와 4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3.67점으로 나타난 고영지와 김인경 [7]의 연구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나이, 학년, 학제에 따라 전문직관의 차이를 보인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이러한 변수들이 하위영역 변화에 있어도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이러한 것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9점으로 중간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전공을 가진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2.80 (전문대학 2학년학생) [25], 3.32 (아동영양교육전공) [26]보다 본 연구의 전공만족

도가 높아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일반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졸업 후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의 전문성을 지닌 학과의 경우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결과와 일치한다 [27].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인식만족이 가장 높게, 관계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학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졸업 후의 진로나 사회생활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반면, 교수-학생과의 관계에서는 조언을 구하거나 원활히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28]. 이러한 교수-학생 간의 낮은 관계만족은 지도교수 상담 또는 졸업생과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높이도록 해야 한다 [17].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3.51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 중 3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경희 [29]가 보고한 3.50점과 비슷한 수준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여준 3.73 [30], 3.60 [20]보다 낮게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이 일반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나이, 학년, 취업유무,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 및 전공만족도 하부요인 중 일반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보여주듯이 여러 연구에서 나이, 학년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논의되었으며, 본 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나이, 학년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준비교육을 적용할 필요성을 설명해 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며 [7], 성지아 등 [9]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도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사 일에 대한 가치, 전문성, 진로 분야의 전문성을 의미하는 간호전문직관이 높으면 향후 진로를 준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간호대학 재학 기간동안 간호의 전문성과 실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안이나 교과 외 여러 활동들에 간호전문직관을 포함시킨다면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종인 외 [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이정선과 김정

아[30]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취업전략에 중요한 변수라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여, 간호대학생에게도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서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셀프리더십이 발달되면, 대학생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진로목표설정에도 도움과 목표성취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쳐 학생 스스로가 더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2]. 앞서 지적했듯이, 간호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점수는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간호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 셀프리더십은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된 교육이 간호대학시기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시간 동안 학습과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과 상관관계는 있으나 실제 회귀모형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공만족도의 하부요인들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하부요인 중 일반 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교과과정 또는 교수와의 관계보다 간호학이라는 자신의 전공에 스스로 만족하는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정보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진로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같이 진로 관련 인지, 태도적인 요인에 전공만족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동적인 측면인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다른 영향요인의 매개조절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확인하고,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의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간호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진로준비행동은 나이, 학년, 취업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 수준 및 전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간호교육기관에서는 학년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더불어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과정 내 개설 및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Kim BW, Kim KH.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997;9(1):311-333.
2. Choi JI, Han TY, Lee YH.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of physical education major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014;23(5):113-126.
3. Kim MA, Lim JY, Kim SY, Kim EJ, Lee JE, Ko YK.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4;13(4):383-391.
4. Bang KS, Cho JK.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on nursing and future caree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8;14(1):88-97.
5. Moon IO, Lee GW.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16(1):83-91.
6. Lee KA, Kim JH.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2015;12(2):42-49.
7. Ko YJ, Kim IK.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1):62-71.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1.062>
8. Korean Nurses Association. Policy materials [Internet].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updated 2014 Mar 3; cited 2014 May 7]. Available from:

- http://www.koreanurse.or.kr/board/board_read.php?board_id=policy&member_id=admin&exec=&no=10&category_no=&step=0&tag=&sgroup=9&float=&position=2&mode=&find=&search
9. Seong JA, Bang SY, Kim SY.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2012;2(2):29-38.
 10. Cho MS, Choi KS.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7;8(3):1085-1099.
 11. Kim JG. The study on the effects of individual'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2012;25(3):161-179.
 12. Kim EH, Kim BH. A study on the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ender role identit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10;29(4):165-183.
 13. Yeun EJ, Kwon YM,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6):1091-1100.
 14. Park HJ, Oh JW.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12(12):417-426.
 15. Kim KH,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0;1(1):7-20.
 16. Han SJ.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3;25(5):559-566.
 17. Jeong MH, Shin MA.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12(2):170-177.
 18. Manz Charles C, Henry P. Sims. *The new super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Publishers; 2001.
 19. Lee JC, Hong AJ. Difference and impact of university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mployabilit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2013;15(3):215-245.
 20. Kim KH. Analysis of influence and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employment strategies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3;20(10):369-390.
 21. Han SS, Kim MH, Yun EK.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8;14(1):71-79.
 22. Lee DJ.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Yousei University; 2004.
 23. Manz C. *The art of self-leadership: A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New Jersey: Prentice-Hall; 1983.
 24. Kim HS.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master's thesis]*. Seoul: Soongsil University; 2003.
 25. Byun EK, Park SH.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on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1):323-330.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323>
 26. Kim YJ, Kim YY, Lee SM.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satisfaction with major, career identity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children's English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13(9):39-47. <http://dx.doi.org/10.14400/JDC.2015.13.9.39>
 27. Chang MY.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n their majors, attributional style, and career decision level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5.
 28. Kim DJ, Lee JS.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2):244-254.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244>
 29. Cho KH.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bout job-satisfaction and outcome of nursing practice [master's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03.
 30. Yi JS, Kim KA.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on the employment strategie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2012;16(2):19-39.